

전북연구원 보도자료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, 천년 전북!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▪ 문의 : 산업경제연구부 황영모 연구위원
(063-280-7132)
▪ 담당 : 연구본부장 이강진 연구위원
(063-280-7141)

보도시점 : 2020년 11월10일(화)부터

코로나19, 전환사회를 향한 방향과 과제 제안

**코로나19는 생태적·사회적 '거대한 전환'을 강조
'회복력을 갖춘 전환사회'로의 실천이 시대적 과제**

- '코로나19'라는 미증유의 사태는 단순 감염병 유행을 넘어 근본적인 성찰과 삶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. 생태적인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는 구조 전반의 '거대한 전환'이 절실하다.
-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이슈브리핑(234호) 「코로나19, 전환사회를 향한 방향과 과제」를 통해 '전환사회의 의미와 지역의 대응방향과 과제'를 제안했다.
- '전환사회'란 '회복력 있는 지역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회실험'으로 20년 후를 목표로 행동계획을 지금 세우고 적극 실천해야 함을 강조한다.
- 구체적으로 지속가능성과 같은 전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뒤 목적의식적으로 체계 차원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. 전환사회는 필시 '문명의 생태화를 통한 생태적 전환'을 의미한다.
- 전환사회를 위한 혁신적 정책실험과 실천은 영국의 '토티네스'와 미국의 '포모나'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.

- 토트네스는 '전환도시 프로젝트'를 통해 '먹거리, 주택, 에너지, 교통, 개인생활' 모두를 전환하는 행동계획을 실천하고 있다.
 - 포모나는 '공감도시 선언'을 통해 탄소저감, 경제활성화, 일자리 창출, 환경정의 등의 '지역자생의 힘'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.
- 연구책임을 맡은 전북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(산업경제연구부장)은 '전환사회를 위한 지역의 대응방향과 중점과제'를 제안하였다.
 - 전환사회를 위해서는 '①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삶으로, ②최선 중 최선에서 최악 중 최선으로, ③관성적 사고에서 생태적 상상력으로, ④제도정치에서 생활정치로'의 전환이라는 '대응방향' 설정이 필요하다.
 - 지역사회의 중점과제로는 '①지속가능 전환사회 기본조례 제정, ②주민자치 프로젝트의 선도적 추진, ③전환사회 가치의 학교교육·사회교육 확대, ④다양한 생활 실천 프로젝트'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.
 - 연구를 맡은 황영모 연구위원(산업경제연구부장)은 “우리 사회는 하드웨어적 충격에 대비한 사회적 회복력, 생태적 회복력, 경제적 회복력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관리가 중요하며, 그것이 전환사회의 의미이자 시작이다”라고 강조했다. (끝)